

## [서 평]

### 제주해녀노젓는소리 연구

(이성훈, 학고방, 2010년 발행)

좌혜경\*

이성훈의 『해녀노젓는소리 연구』는 제주의 어업노동요를 대표하고 제주 해녀들의 삶의 정서가 올곧게 표현되었다고 하는 해녀들이 노를 저으면서 불렀던 노래를 선정해 연구한 결과물이다. 저자가 책의 서문에서 밝힌 바대로 그는 노래의 형성 과정과 전승 양상, 가창 방식과 율격, 사설의 분류와 교섭, 가창자의 생애와 의식 등을 현장론적 측면과 작가론적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했다.

특히 ‘해녀노젓는소리’의 가치를 규명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가 인터뷰를 시도하는 등 발품을 팔아가며 어렵사리 얻어낸 결과물이란 점에서 학자로서의 치열한 연구 열정을 높이 사지 않을 수 없다. 이를테면 경상남도 지역인 사천시·통영시·거제군·남해군 등에 거주하면서 물질작업을 벌이는 해녀들을 직접 방문해 인터뷰를

---

\* 민속학자, 문학박사

시도한 것 등이다.

그 간의 연구 결과는 이미 『해녀의 삶과 그 노래』(2005), 『제주도 '해녀노젓는소리'의 전승과 변이 양상』(2005)을 통해 이미 선보인 바 있다.

저자가 이 책에서 밝힌 연구결과를 그 논지를 중심으로 살피고 몇 가지 연구의 한계를 짚고 넘고자 한다. 이는 한국 민요학 연구가 민속학, 사회학, 음악학, 문학적 측면의 총체적 분석, 단일학문으로서의 집중적 분석 등 여러 제한적 특성에 의해 나타나는 문제점이기도 하다.

첫째, 노래의 소멸시기에 대한 연구 결과의 신뢰성이다. 그는 소멸시기를 제주를 떠나 본토로 출가한 지방 거주 해녀들에 초점을 맞추고 분석한 결과는 '해녀노젓는소리'가 1930년대까지 흔히 불렸으나, 1940~1950년에는 많이 사라졌고 여객선 첫 취항 시기인 1963년을 분수령으로 하여 완전히 사라졌다고 한다.

그러나 해녀들은 이 노래를 출가 물질에서 직접 노를 저으면서 육지부로 가는 경우에만 노래한 것이 아니라, 제주에서 작업할 때도 마을 어장의 배 이용이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가창기연이 되는 노동기능의 소멸 시기는 제주지역에서 풍선이 발동선으로 바뀌게 된 시기를 고구한다면 이보다는 더욱 늦어질 수 있다고 하겠다.

구비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할 때는 늘 한계가 따르기 마련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목적에 따른 치밀한 조사와 수집으로 객관적인 신뢰도와 학문적 완성도를 높여야한다. 구비자료가 지니는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하기 위한 방편으로 역사자료나 인접학문의 결과 등을 인용하여 설득력을 높여야만 자신의 연구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다.

둘째, 노래 사설에 나타나는 각편 내용에 따른 분류와 타 유형 노래의 예를 보면 같은 여성들이 부른 노동요 ‘맷돌·방아노래’와 여타 기능의 노동요 사설과 교섭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그렇지만 민요 사설은 전승과정에서 공식구(formula)로 되면서 일반인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여 창자들에게 선택되어 불리는 경우가 흔한데, 이는 자연과 사회, 역사, 문화 등의 동일 지역권에서 공동체가 창안한 생산물로 간주하여야 하고, 동일 공식구의 다른 요종별 교섭에 관한 논의는 구비문학의 속성상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가창방식과 율격의 관계이다. 민요는 엄연한 음악이다. 그런데 국문학 연구자들이 민요가사를 시로 인정하여 시의 율격 이론을 이용해서 분석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해녀노젓는소리’처럼 노동동작이 음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노동과 박자의 상관관계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자는 효율적 방안으로 악구(phrase)의 악곡구조를 기준으로 행 구분과 음보구분의 당위성을 제시했다.

넷째, 가창자의 생애를 통해 생애관련 사설 반영여부, 그리고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고정구를 개인 생애력과 관련하여 해석하고 가창자 사고와 의식의 반영이라는 면에서 분석하였는데, 이 또한 가창자 의식이 어느 정도 해명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곧 이성훈의 연구는 그간의 민요연구가 지니는 민속학적·문학적인 연구의 한계를 나름대로 고민하고 그 대안으로 현장을 바탕으로 하여 학제간의 종합적인 연구방법으로 성과를 도출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개인적 작품이야니라 공동작이라는 점과 제주, 해녀, 여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해석하여 ‘해녀노젓는소리’의 위상은 그 베일을 벗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층 심도 있는 연구 성과를 얻으려면 다양한 방법론적 접근으로 해녀노래가 지니는 역동적인 에너지, 자연과 조화하고 합

일하는 여성생태주의, 노래라는 방식이 갖는 정서 표현의 효율성 추구 등 차후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 연구서는 ‘해녀노젓는소리’에 대한 애정과 탐구, 새로운 학문적 성과 추구, 자료수집의 근면함, 총체적인 분석 시도, 진지한 학자적 자세가 여실히 드러난 역작이라는 점에서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기도 했다.